

AI 에이전트 부업 자동화 스타터 가이드

브라우저까지 대신 움직이는 AI에게
진짜 업무를 맡기고, 검증하고, 판매까지 이어가는 법

시작하며 — 이 가이드가 다루는 것과 다루지 않는 것

"AI에게 며칠 안에 얼마를 벌여오라고 시켰더니 큰돈을 벌여왔다"는 영상들이 요즘 많이 보입니다. 흥미롭고, 실제로 가능한 방향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런 영상 대부분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AI에게 구체적인 미션과 도구를 주고, AI가 브라우저까지 조작해 실제 작업을 대신 수행하고, 결제·발행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마지막 단계는 사람이 직접 확인한다.** 마법처럼 통장에 돈이 저절로 쌓이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실무를 AI에게 위임하는 구조입니다.

이 가이드는 그 구조를 실제로 어떻게 만드는지 다룹니다. 과장된 수익 스크린샷이나 "이대로만 하면 한 달에 얼마" 같은 약속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순서, 실제로 쓰는 프롬프트, 그리고 반드시 사람이 확인해야 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짚습니다.

1. 왜 지금 "AI 에이전트 + 브라우저 자동화"인가

2025년 이후 코딩 에이전트(Claude Code, Codex 등)는 단순히 텍스트를 생성하는 도구를 넘어, 실제 브라우저를 열고 클릭하고 타이핑하는 조작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전에는 "AI가 글을 써준다"에서 멈췄다면, 이제는 **그 글을 실제 판매 플랫폼에 등록하는 것까지 AI가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획 → 제작 → 업로드 → 발행이라는 사슬에서 사람이 매 단계 개입하지 않아도, AI가 초안부터 등록 직전까지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역할은 "무엇을 시킬지 정하는 것"과 "마지막에 확인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좁혀집니다.

핵심 요약: AI 에이전트 부업의 본질은 "AI가 돈을 번다"가 아니라 "AI가 반복 노동을 대신하고, 사람은 판단과 최종 승인만 한다"입니다.

2. 실전 준비물

구성 요소	무엇을 하는가	예시 도구
코딩 에이전트	기획, 글쓰기, 코드/파일 작업, 브라우저 조작	Claude Code, Codex

브라우저 자동화	실제 웹사이트 조작 (로그인, 업로드, 클릭)	Playwright, Chrome 확장 기반 자동화
이미지 생성	표지, 콘텐츠 이미지 제작	무료 티어가 있는 이미지 생성 API
판매 플랫폼	결제와 다운로드 처리	Gumroad (등록비 없음, 판매 시에만 수수료)

비용 주의: 이미지 생성이나 텍스트 생성 API 중에는 사용량에 따라 과금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료 티어 한도를 꼭 확인하고, 유료 API는 실행 전 예상 비용을 먼저 계산해서 확인받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여러 개를 한 번에 만들 때 비용이 순식간에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1단계 — 팔릴 만한 것을 기획하기

가장 많이 실패하는 지점은 "아무거나 만들고 본다"입니다. 첫 상품은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누가 지갑을 여는가?** 막연한 대중이 아니라, 지금 이 문제로 실제로 검색하고 있는 사람을 떠올려야 합니다.
2.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경쟁 상품이 없는 시장은 대개 수요도 없는 시장입니다. 이미 비슷한 걸 파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검증된 수요라는 신호입니다.
3. **내가/AI가 하루 안에 완성할 수 있는가?** 처음부터 완벽한 강의나 SaaS를 노리지 말고, PDF 가이드·템플릿·체크리스트처럼 하루 안에 끝낼 수 있는 형태로 시작하세요.

AI에게 기획을 맡길 때 쓰는 프롬프트 예시

"[관심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검색할 만한 디지털 상품 아이디어를 5개 제안해줘. 각 아이디어마다: 예상 타겟, 왜 지금 팔릴만한지, 하루 안에 만들 수 있는 최소 버전이 무엇인지 같이 적어줘."

4. 2단계 — AI에게 실제로 만들게 하기

기획이 정해지면, 콘텐츠 제작은 에이전트에게 맡기되 결과물을 반드시 사람이 훑어봐야 합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는 AI가 자주 틀리는 지점입니다.

- 사실 관계 — 가격, 통계, 규정처럼 틀리면 신뢰가 깨지는 정보
- 과장된 약속 — "무조건 성공한다"는 식의 문구는 신뢰도 문제이자, 플랫폼 정책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 — 다른 사람의 글이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는지

실전 팁: 표지·본문 이미지는 무료 티어가 있는 이미지 생성 API를 활용하면 추가 비용 없이 여러 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매번 몇 장을 만들지, 어떤 화질로 만들지는 사람이 먼저 정하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5. 3단계 — 브라우저 자동화로 등록하기

여기가 "AI가 브라우저를 직접 움직인다"는 부분입니다. 코딩 에이전트에 브라우저 제어 도구를 연결하면, 다음과 같은 작업을 사람 대신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판매 플랫폼에 로그인 (이미 로그인된 세션 재사용)
2. 새 상품 등록 화면으로 이동
3. 제목, 설명, 태그, 가격 입력
4. 파일 업로드 및 커버 이미지 첨부
5. **발행 버튼 직전에서 멈추고 사람에게 확인 요청**

가장 중요한 원칙: 결제가 걸리거나, 공개적으로 게시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액션(발행, 게시, 결제 확정) 앞에서는 AI가 스스로 누르게 하지 마세요. 이 마지막 1%를 사람이 확인하는 습관이 사고를 막습니다. 실제로 이 원칙을 지키는 것과 안 지키는 것의 차이가, "괜찮은 실험"과 "사고"를 가릅니다.

6. 4단계 — 돈을 안 쓰고 트래픽 만들기

상품이 등록됐다고 저절로 팔리지 않습니다. 광고비를 쓰지 않는다면, 초기 트래픽은 대부분 SNS 유기 노출에서 나옵니다. X(트위터)나 Threads에 올릴 때 효과가 좋은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정을 보여주기** — 완성품 광고보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과정 공유가 훨씬 반응이 좋습니다.
- **숫자 하나를 구체적으로 넣기** — 막연한 문구보다 "72시간", "3줄 프롬프트" 같은 구체적 숫자가 시선을 끕니다.
- **과장하지 않기** — 검증되지 않은 수익 숫자를 내세우면 초기엔 클릭이 늘지만, 장기적으로 신뢰를 깎습니다.

포스팅 초안 프롬프트 예시

"방금 만든 [상품명]을 X/Threads에 홍보하는 글 3개 버전을 써줘.

1) 과정 공유형 2) 문제 제기형 3) 짧고 임팩트있는 흑형.

과장된 수익 주장은 넣지 말고, 실제로 확인 가능한 사실만 담아줘."

7. 반드시 사람이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단계	사람이 확인할 것
콘텐츠 완성 후	사실관계 오류, 과장 문구, 저작권 문제
가격/결제 설정	가격이 의도한 금액이 맞는지, 통화 단위
발행 직전	실제로 공개해도 되는 상태인지 최종 확인
SNS 게시 직전	계정 이미지에 맞는 톤인지, 과장 없는지
결제 발생 후	실제 결제/구매자 응대는 사람이 직접 처리

8. 자주 하는 실수

- **승인 없이 계속 확장하기** — 처음 한 번 허락받았다고, 그 뒤로 수십 개를 자동으로 계속 만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특히 비용이 드는 작업일수록 매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화질/옵션을 AI가 임의로 정하게 두기** — 비용에 영향을 주는 선택(예: 이미지 고화질 옵션)은 AI가 마음대로 정하지 않고, 차이를 알려주고 사람이 고르게 해야 합니다.
- **플랫폼 정책 확인 생략** — 어떤 카테고리는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 전 플랫폼 정책을 한 번은 직접 읽어보세요.

마치며

이 가이드의 목표는 "AI가 알아서 다 해준다"는 환상을 파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반복 가능한 구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AI에게 맡길 수 있는 부분과, 사람이 반드시 남겨야 하는 마지막 판단을 명확히 나누면, 부업이든 실험이든 훨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작은 상품 하나를 오늘 끝까지 만들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처음 한 번을 실제로 완주해보면, 그다음부터는 훨씬 쉬워집니다.

본 가이드는 특정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실제 결과는 시장 상황과 실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